

디젤스캔들, 하이브리드-대박, 휘발유-어부지리?

- 디젤스캔들 발생 후 매주 자동차 소비자 조사
- 모든 디젤, 수입차 시장 전체에 악영향 줄 것
- 국산-휘발유차, 일본-하이브리드 부상할 가능성
- 독일 고급 휘발유차, 상대적으로 덜 타격받을듯

추석을 앞두고 터진 디젤스캔들에 자동차 소비자와 관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연휴를 지나며 다소 침착해진 눈으로 시장을 보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극소수만이 디젤엔진 문제가 특정회사만의 문제라고 믿고, 모든 디젤차와 모든 독일차에 의구심을 갖지만 확신은 없다. 디젤 엔진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실현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독일차는 큰 위기를 맞고 국산차는 호기를 만났다는 느낌이 있지만 자신은 없다. 2년내에 새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다는 소비자의 말을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온다. 소비자의 말을 들어보자.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는 매년 7월에 실시해 온 표본규모 10만명의 초대형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를 물어 왔다.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서 '2년내에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는 소비자(31,809명)'를 확보했고, 디젤스캔들이 터진 이후(9월 22일) 지난 3주 동안 매주 1200여 명을 이들로부터 선발해 긴급여론조사(1차 9월24일, 2차 9월29일, 3차 10월8일)를 3차례 실시했다.

먼저 폭스바겐의 EA189엔진에서 비롯된 디젤스캔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표1). 스캔들 2일 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구입의향자의 9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3차에서는 98% 까지 올라갔는데, 이들이 구입의향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높은 것이다.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Mobile. 010-4173-7924 Fax 02) 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Consumer Insight Inc. <http://www.consumerinsight.co.kr>

[표1] 1~3차 조사 주요 결과

설문 내용	응답 보기	1차 조사 (9.24)	2차 조사 (9.29)	3차 조사 (10.8)
		(N=1,219)	(N=1,211)	(N=1,219)
Q1 배기가스 문제를 아느냐?	% 알고 있다	93%	96%	98%
Q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는?	% 폭스바겐만	10	7	6
	% 모든 유럽회사	42	48 ↑	50
	국산차 - % 커짐	35	37	32 ↓
	일본차 - % 커짐	13	14	11
Q3 사건 후 각국차 구입의향은? (커짐 or 작아짐)	유럽차(독일차 제외) - % 커짐	6	9	5
	독일차 - % 커짐	4	4	2
	미국차 - % 커짐	-	-	9
	휘발유 (41%)*	40%	35% ↓	36%
Q4 향후 구입의향 연료 타입은? (Total 100%)	경유 (43%)	21% ↓	19%	21%
	하이브리드 (11%)	29% ↑	35% ↑	33%
	LPG (5%)	6%	6%	5%
	전기차 (1%)	5%	6%	5%

* : 2년내 구입의향자(N=31,809) 전체의 구입의향 연료 비율 (15년 자동차 기획조사)

↓↑ : 이전 조사 대비 5%p 이상 증가(↑)/감소(↓)

디젤스캔들과 관련있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지 물었다. 처음부터 소비자의 소수(10%)만이 폭스바겐만의 문제일 것이라 보았다. 이는 2주 후에 6%로 줄어, 극소수만이 폭스바겐만의 문제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든 유럽차가 그럴 것이라는 답은 1차 42%였으나, 3차 50%로 올라갔다. 자동차 구입계획자의 1/2이 모든 유럽차가 그럴 것이라 보았고, 3/4은 국산차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차 80%, 3차 74%). 많은 소비자가 모든 자동차 회사를 의심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구입할 생각이 사건 전에 비해 '커졌는지 또는 작아졌는지' 물었다. '커졌다'는 답을 3차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국산차가 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본차 11%, 미국차 9%, 유럽차(독일 제외) 4%, 독일차 2%에 불과했다. 반면 '작아졌다'라는 답은 국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국가가 30%를 넘어 모든 외산차에게 크게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에게는 큰 호재, 외산차에게는 큰 악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어떤 연료타입을 구입할 생각인지 묻고, 그 답을 지난 7월 정기기획조사에서의 답과 비교했다. 구입하려는 연료타입은 디젤 스캔들 직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급변했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7월 조사에서의 전체 구입의향자의 답과 지난 주 3차 조사의 결과를 비교했다. 7월 기획조사에서 43%로 1위였던 디젤은 21%로 1/2이하로 줄어들었고, 휘발유 역시 41%에서 36%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11%에서 33%로 3배가 되었고, 존재가 미미했던 전기차는 5%로 올라섰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Mobile. 010-4173-7924 Fax 02) 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Consumer Insight Inc. <http://www.consumerinsight.co.kr>

조사 결과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급 부상, 디젤의 급락과 휘발유의 동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수요-공급과 소비자의 선호가 일치할 수는 없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공급이 디젤의 수요 감소분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분간 휘발유가 그 반사이익을 챙기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독일계 고급 휘발유차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회사에게 동력장치는 자식과 같다. 디젤, 휘발유, 하이브리드, 전기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어디에 더 집중할지 전략적인 결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조급한 마음에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디젤스캔들은 이제 시작단계다.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소비자가 버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조사는 제6차 조사(10월 30일)까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태선 전무(yoonts@consumerinsight.kr / 02) 6004-7655)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월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10만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년 9월 하순부터 발표되고, 조사결과는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체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 발표 내용과 '한국 자동차 품질 리포트' 내용은 (주)컨슈머인사이트가 개발한 '한국형 온라인 자동차 컨슈머리포트' 사이트인 'AutoInsight'(www.autoinsight.co.kr)에 실리고 있으며, Daum의 자동차섹션 중 '오토칼럼'에도 상시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AutoInsight'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및 서비스평가 내용을 자동차 모델별로 비교하는 'One Page Report'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개요]

- 조사 수행 기관: 컨슈머인사이트(www.consumeinsight.co.kr)
- 조사 성격: 기획조사 (Syndicated study)
- 모집단: 전국의 e-mail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자
- 조사 시점: 2015년 7월
-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우편조사 (e-mail survey)
- 조사 규모: 총 응답자 105,672명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Mobile. 010-4173-7924 Fax 02) 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Consumer Insight Inc. <http://www.consumerinsight.co.kr>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컨슈머인사이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허가 없이 어느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utoinsight.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윤태선 전무 T:02-6004-7655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Mobile. 010-4173-7924 Fax 02) 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Consumer Insight Inc. <http://www.consumerinsight.co.kr>